

SK케미칼, 친환경 화학기업 인증

환경부, 최고 경영진 의지 및 환경개선 평가 ... 심사기간만 80일

SK케미칼(대표 홍지호) 수원공장이 최근 <환경부 주관 환경친화기업>으로 지정받았다.

SK케미칼은 1월16일 수원공장에서 홍지호 SK케미칼 사장 및 차승환 경인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친화기업 인증서 전달식과 현판식을 가졌다.

<환경친화기업> 지정제도는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경영을 유도키 위해 환경 관련법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,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심사 기간만도 약 80일 정도 소요될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.

특히, 현장에 대한 세심하고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정 자체만으로도 큰 무게를 두고 있다.

환경부가 요구하는 환경친화기업의 요건은 최고 경영진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의지와 능력, 환경경영 의지를 토대로 한 전 구성원의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과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다.

SK케미칼 관계자는 “환경친화경영을 위해 첨단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했으며 오염물질 저감과 함께 외관을 단장하고 수목을 가꾸는 등 공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염물질 저감 활



홍지호 SK케미칼 사장(왼쪽)과 차승환 경인지방환경청장

동을 기반으로 수원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SK케미칼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1/20>